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물류연구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세계 물류동향 중 국제물류투자 협의체 회원사들(2009.8 현재 122개 업체)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신규 해외사업 발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합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들과 국토해양부 관계관 여러분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수요일 배포됩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글로벌 물류 신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회원사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 센터는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 관련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매체로서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 목 차 >

□ 미국 Virginia 항만 민영화 프로젝트에 3개사 경합 중	2
□ 독일 HHLA사, Lübeck항 사업부문 매각키로	4
□ 몰타 Freeport 터미널, 대형 크레인 4기 도입	5
□ 중국 상해항 · Ningbo항, 합작 항만투자사 설립 추진 등 전략적 제휴	6

□ 미국 Virginia 항만 민영화 프로젝트에 3개사 경합 중

- 미국 Virginia항만청(VPA : Virginia Port Authority)은 Virginia 항만 민영화 프로젝트 입찰의 마감결과(2009.7.27) 모두 3개사가 경합중이라고 발표

① Centerpoint Properties Trust(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공단이 대주주)

② Carlyle Group(글로벌 사모펀드, 워싱턴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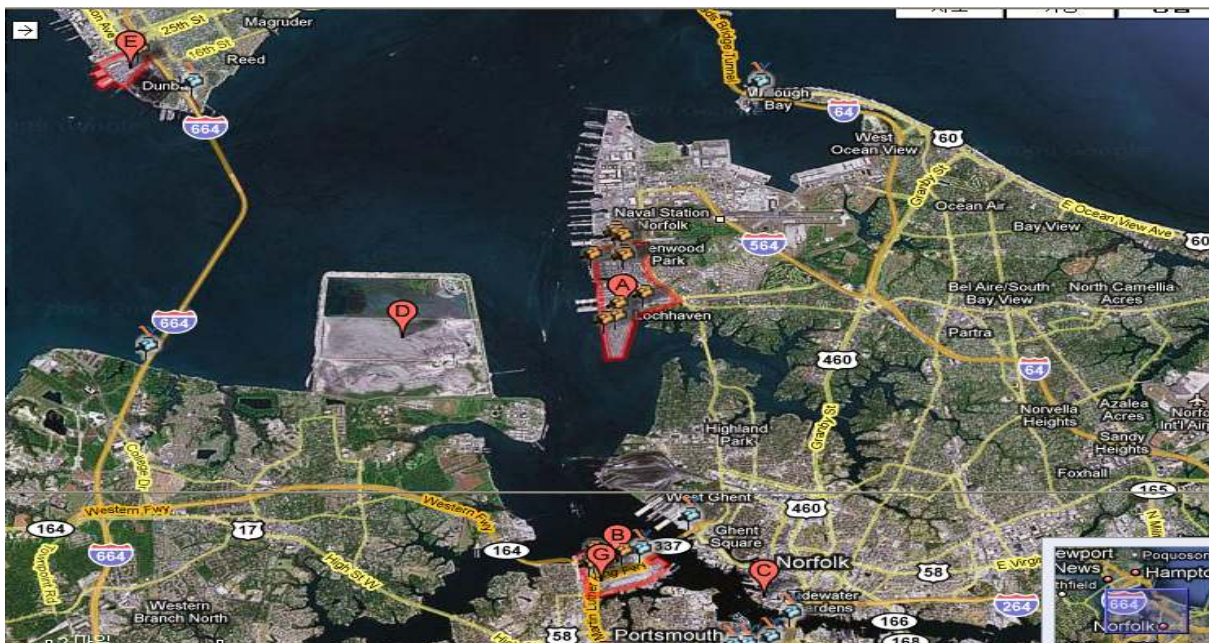
③ Carrix(SSA Marine의 모회사) + Goldman Sachs 컨소시움

※ CenterPoint사는 2009.3.12 단독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Virginia주의 Public Private Transportation Act of 1995에 의거 다른 경쟁사의 참여를 초청하는 기간 동안 2개사가 이번에 추가로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

- Virginia 항만 민영화 입찰 대상 항만시설 및 프로젝트

- VPA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시설 전부가 민영화 대상(운영기간 60년)
- 현재는 VPA의 자회사인 Virginia International Terminals사(VIT)가 운영중
- 민영화 대상 항만시설은 Virginia주의 Norfolk, Portsmouth, Newport News 및 Front Royal시 등에 산재된 VPA 소유시설(3개 컨테이너터미널, 1개의 내륙복합화물기지)
- 또한 Craney Island에 신규로 컨테이너 터미널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도 포함

< Virginia 항만의 터미널별 위치도 >



- ① Norfolk International Terminals(NIT), ② Portsmouth Marine Terminal(PMT),
③ Craney Island 신규 터미널 부지, ④ Newport News Marine Terminal(NNMT)

○ 민영화 대상 컨테이너 터미널 개요

	Norfolk International Terminals	Portsmouth Marine Terminal	Newport News Marine Terminal
선석길이 (선석수)	1,564m(5)	759m(2)	1,007m(5)
수심	9.8~12.5m	13.7m	10.4~12.2m

※ 3대 터미널에서 2008년 2,083,278 TEU 처리(2007년, 2,128,366 TEU)

- CenterPoint사는 2009.3 총투자비로 현재가치 기준 35억불(약 3조 2천억원)을 제시
 - 기존 항만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22억불, 신규 터미널 건설에 13억불을 계획

< Craney Island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후 조감도 >



- 그러나 총투자비를 60년 누적가치로 환산시에는 총 89억불에 상당한 것으로 평가
 - ① 사업착수금 납부 : 5억불
 - ② 주 교통신탁펀드 부담금 : 40억불(60년간)
 - ③ VPA에 납부하는 연간 총 임대료 : 10억불
 - ④ 항만운영 수입의 분담금 : 4억 4천만불
 - ⑤ 관련 지자체에 대한 납부금 : 6억 1,500만불
 - ⑥ 기존 항만시설 유지보수비 : 10억 2백만불
 - ⑦ Craney Island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비 : 13억불

※ CenterPoint사는 이미 미국내 내륙복합운송기지에 투자 중이며, Virginia에 인접한 Suffolk에도 3억 2,500만불을 투자하여 물류단지 건설 중

- Virginia항만청 항만위원회 및 주 교통부의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 결정 전망(1년 이상 소요)

자료 : Virginia Port Authority, Cargonews Asia 2009.8.12, CI-Online 2009.7.28

□ 독일 HHLA사, Lübeck항 사업부문 매각키로

○ HHLA사(Hamburger Hafen und Logistik AG) 개요

- HHLA사는 1885년 창립된 독일 유수의 종합물류기업으로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 및 철도, 육운, 해운수송사업과 관련 부대 물류사업을 영위
- 2008년 매출액 2억 5,600만 유로(약 4,500억원), 당기순이익 2천만 유로(약 350억원)
- 납입자본금은 72,679,826 유로(약 1,260억원), 2009.7 주가는 30유로 수준
- 컨테이너 터미널 사업부문이 HHLA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Hamburg항의 3개 자사 컨테이너터미널에서 2008년에 730만 TEU 처리(Hamburg항의 2008년 전체 처리량은 970만 TEU, 세계 11위이며 이 중 HHLA사 처리 물량이 전체의 75%를 차지)

○ Lübeck항 사업부문 매각배경

- Lübeck항은 Hamburg 동북부 발트해에 위치한 항만(2008년 92,000TEU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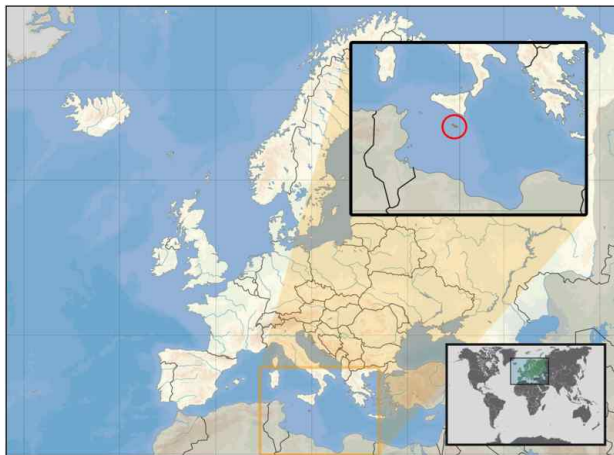


- HHLA사는 Lübeck항에서 combisped이라는 자회사를 통해 컨테이너터미널(CTL : Container Terminal Lübeck, 300m 길이 1선석, 수심 9.5m) 운영사업 및 철도·트럭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이번에 그룹 구조조정 차원에서 동 사업부문을 매각키로 결정
- combisped는 Management Buyout(경영자인수) 방식으로 2009.9 현 경영진에게 매각예정이며 Container Terminal Lübeck은 별도 절차를 거쳐 매각 예정

자료 : Hamburger Hafen und Logistik AG, Lloyd's List 2009.7.24

□ 몰타 Freeport 터미널, 대형 크레인 4기 도입

- 지중해의 대표적 환적항만인 몰타 Freeport 터미널(Malta Freeport Terminals)은 최근 3,500만불을 투자하여 Super Post Panamax급 안벽크레인(ship-to-shore crane) 4기를 도입
 - 80톤의 인양능력을 갖고 있는 동 크레인의 설치로 Freeport 터미널은 13,500TEU급 컨테이너선의 효율적인 하역이 가능
- 몰타 Freeport 터미널 개요
 - 이태리 시칠리아섬에서 남쪽으로 93km 떨어진 지중해 한 가운데 위치한 항만으로 지중해의 대표적인 환적항만
 - 2004.10 세계 3위의 컨테이너 선사인 CMA CGM사가 몰타 정부로부터 65년 운영권을 확보(Operate & Develop-Concession)하여 운영 중
 - 당초에는 30년 계약이었으나 2008.2 이를 65년으로 연장 계약
 - Terminal One(1,168m, 수심 15.5m)과 Terminal Two(1,258m, 수심 15.5m)의 양대 터미널에서 2008년에 233만 TEU 처리(2007년, 1,887,405 TEU)



○ 향후 항만확충 계획

- Freeport 터미널은 기존 터미널의 수심을 17m로 증심하고, 선석 길이를 총 3,000m로 확장하여 연간 300만 TEU 처리능력의 터미널로 확충할 계획
- CMA CGM사는 이를 위해 2억 700만불을 추가 투자 예정(기투자액 1억 3,100만불)

자료 : Malta Freeport Terminals, Journal of Commerce 2009.7.23

□ 중국 상해항 · Ningbo항, 합작 항만개발사 설립 추진 등 전략적 제휴

- 중국 최대의 컨테이너 항만인 상해(上海)항과 3위 Ningbo(寧波)항은 50:50으로 중국 국내항만의 건설과 투자에 참여하는 합작회사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어 주목
- 양 항만의 관리회사인 Shanghai International Port Group(SIPG)과 Ningbo Port Group은 납입자본금 1억 위안(약 180억원)의 합작사를 설립기로 합의



- 현재 중앙정부 국유재산감독관리위원회(State-Owned Assets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Commission)의 승인을 기다리는 단계

※ Ningbo항에는 Ningbo Port Group 이외에 Ningbo항무국을 주식회사인 Ningbo Port Company로 공사화하고, 상해 및 홍콩 증권시장에 신규 동시 상장되는 시점(2009년말 또는 2010년초)에 SIPG가 동사의 일정 지분 취득도 추진 중

- SIPG와 Ningbo Port Group의 비교

	S I P G	Ningbo Port Company
설립일	2003년 1월	2008년 4월
증권시장 상장일	2006년 10월	현재 상장 추진중
주요 주주	상해시 정부 44.23%, China Merchants 26.54%, Shanghai Tongsheng Investment 16.81%	Ningbo Port Group 94.6%, China Merchants 5.4% (신규 상장시에는 동 지분이 타 주주에 분산 전망)
임무	상해항 전체를 관리	Ningbo항 전체를 관리
2008년 컨테이너 처리량	2,798만 TEU(세계 2위, 중국 1위)	1,123만 TEU(세계 7위, 중국 3위)

자료 : Shanghai International Port Group, Ningbo Port Group, Seatrade Asia 2009.7.17

유재만 연구위원(☎ 02-2105-4964, yoojmn@kmi.re.kr)